

지역 매 아 리

정읍시보건소, 내달부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정읍시보건소(소장 문상용)는 10월 2일부터 만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위탁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초기 혼합 방지와 안전한 접종을 위하여 연령별로 순차적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만75세 이상 어르신(1943년 이전 출생)은 10월 2일부터, 만65세 이상 어르신(1953년 이전 출생)은 10월 11일부터 위탁의료기관에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총 57개소이며,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읍시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일반시민의 경우 10월 18일부터 유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사항은 정읍시보건소(☎539-6118)로 문의하면 된다.

/정음=김대환 기자

고창군 농촌관광 활성화 모색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최근 고창농촌관광 팸파시사업단이 주관하는 '고창농촌관광 진단과 발전방향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전문가를 초청하여 군민,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창문화관광재단 출범에 따른 고창관광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토의를 진행했다.

이날 △김진장 호원대학교 교수의 '고창농촌관광 발전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임석 강진군 문화관광재단 대표의 '문화관광 재단의 역할과 농촌관광' △김승수 한국 MICE협회 사무총장의 'MICE 산업과 농촌관광의 접목' △손진동 미륵산 자연학교 대표의 '농촌관광 성공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주제발표에 이어 좌장인 송광인 전주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유기상 군수를 비롯한 문화관광과(박생기 과장), 해양수산과(라남근 과장), 농업기술센터(현행열 소장), 팸파시사업단(김수남 단장) 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효과적인 고창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및 방안을 제시하고 심도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송광인 전북대학교 교수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고창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고창군 관광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위도 앞바다 어민 뿔났다'

부안군 위도 어민들 청정 해역 위도 앞바다 해상 관할권 사수 민·관 합동 총력 대처

부안군 위도 앞바다에 대한 관할권을 두고 2년 전부터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부안군과 고창군 간의 해상경계 분쟁에 대해 위도 어민들이 바다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할권을 두고 부안군과 고창군이 힘겨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한법재판소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검증을 하자 부안군이 발빠르게 후속조치를 밟고 있는 가운데 2000여 위도 주민들이 최근 위도 앞바다 사수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위도 어민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은 50년 이상 위도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관할권을 빼앗아 가려는 고창군의 행태에 황당하고 터무니 없다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어민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는 곰소만 내측의 해상경계에 관하여는 일체의 언급을 삼간 채 곰소만 외측의 해상경계선에 대해서만 판지를 거는 것은 누가 보아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창군이 기존의 해상경계선을 새롭게 조정할 의사가 있다면 서로 마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4 이상이 고창군 관할로 되어 매우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곰소만 내측의 해상경계선을 부안



부안 해상경계 조정 자료사진.

군과 똑같이 1/2로 나누는 것부터 먼저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안군은 이번 한법재판소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장을 모순시키거나 부당성을 찾아 이에 대한 반박 대응 논리를 만들어 나가는 한편 종전에 부안군이 주장했던 사항 뿐만 아니라 부안군 관할권 유지의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추가 논리를 새롭게 발굴, 입증할 증거자료 확보에 주력, 대응하고 있다.

부안군은 위도 앞바다의 관할권을 두

고 벌어지는 고창군과 분쟁은 어업인들에만 국한한 문제가 아니고 군민 모두의 공동이익과 자존심이 걸린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수산관련 기관, 단체는 물론 관내 각종 사회단체와도 긴밀히 협조해 민·관이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다.

부안군 해양수산과 신경철과장은 위도 앞바다에 대한 부안군 관할권이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남은 한법재판소의 변론절차를 차질없이 준비해 모든 행정력과 역량을 결집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 고부면 두승산 청정메밀축제 성료

동학농민혁명의 발원지이자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고부면에서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제12회 두승산 청정메밀축제가 성황리에 열렸다.

축제는 두승산 청정메밀축제위원회(위원장 김윤석)와 고부문화관광보존사업회가 주최하고 정읍시와 aT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후원으로 진행됐다. 고부면 고부리 산11번지 일원에서 펼쳐지는 메밀축제는 해가 거듭할수록 정읍시 최고의 지역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청명하고 맑은 파란 정읍의 가을 하늘 아래 새하얀 메밀꽃들이 들안

위에 하얗게 수를 놓아 추석명절 고향을 방문하는 가족 및 친지들에게 고향의 마음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고부 놀재 풍년제를 시작으로 식전공연, 풍등날리기, 떡매치기, 탈골, 맷돌, 새끼고기 등 조가를 파란하늘 아래 다양한 체험으로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고, 웰빙음식 메밀로 만든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었다.

/정음=김대환 기자

고창군, 한우 사업 활성화·브랜드 육성 '적극'

고창군이 FTA 대응과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한우 번식기반 유지 및 개량축진을 위해 최근 한우 명품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간 한우 사육기반의 취약성으로 사업 추진이 다소 늦어졌으나 등록 및 선형심사, 수정란이식, 유량장애 공급 등의 개량사업을 통해 고급육 체계 구축으로 한우 산업 활성화 및 브랜드 육성을 통한 안정적 소득기반 전략으로 올해까지 5년 동안 총 15개

사업 43억원을 투입하여 고창군 한우 명품화 기반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전북도정 삼라농정의 핵심사

업인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 친자검사비 및 관리비를 지원하고 전라북도 한우암소 차별화 및 우수한 송아지 공급을 위해 경매장 출하시 '전북 1기우 송아지'로 표기 및 장려금을 두당 5만원을 지급하여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한우명품화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한 결과 한우 고급육 출현율(1등급이상)이 2014년도에 60%에서 2016년에 68%(증8%)까지 상승하는 효과를 거뒀다. 아울러 한우개량 및 개체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올해 83%까지 올라 한우농가의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유기상 군수는 "축산업이 환경문제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그동안 묵묵히 축산업을 지켜온 한우 농가들에게 감사드리다"며, "앞으로도 고능력암소축군 사업과 같은 고능력 암소를 선발·구축해 고창한우만의 차별성과 개량의 성과를 극대화시킨다면 전국 제일의 명품 한우로 거듭나게 될 것이며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음 메이플스타 오디션 참가신청자 자료사진.

전국의 젊은이들이여! 도전하라!

정음 메이플스타 오디션 참가신청자 1000명 넘어

정읍시가 Free(젊음의 자유)와 Fava(젊음의 열정), Challenge(꿈을 향한 도전)라는 주제로 올해 두 번째를 맞는 정음 메이플스타 오디션 페스티벌(이하 메이플오디션) 광역 도시 예선이 뜨겁다.

메이플오디션은 오는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되는 제2회 정음 사문화제의 일환으로 10월 21일 오후 6시 정읍시공민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지난 7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메이플스타 오디션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중국·일본 등 해외 288명의 참가자를 포함한 총 1,219명이 신청하여 우리나라를 넘어선 메이플오디션의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실감케 한다.

참가신청자 지역별로 보면 서울·인천·경기지역 67명, 강원지역 10명, 대전·충청도지역 77명, 광주·전라도지역 104명, 부산·경남지역 54명, 대구·경북지역 31명, 중국 24명, 일본 22명, 캐나다 1명, 러시아 1명, 기타 2명 등이다.

1차 예선은 지난 9월 1일부터 서

울·대전·대구·부산·광주 5대 도시를 순회하여 300팀을 1차 선발할 예정이다. 이후 10월 중순 정읍 연지아트홀에서 2차 예선을 가진 뒤 20팀을 선발 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집중 트레이닝을 실시한다. 그리고 이들 팀은 최종적으로 10월 21일 본선 무대에서 기량을 겨루게 된다.

우승자인 메이플스타(대상)에는 상금 300만원의 시상금과 함께 디지털 싱글앨범 제작, 방송사 음악 프로그램과 축제 축하공연 출연 기회 제공 등의 특권이 주어진다. 또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20만원과 10만원의 시상금이, 장려상과 인기상 각명에게는 소정의 시상금이나 상품권이 수여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정읍시가 작년에 개최한 정음 메이플 오디션은 전국에서 50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을 이루어 21세기 오디션을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정음=김대환 기자

태산선비문화권 기획전시 '정음을 들여다보다'

정읍시(시장 유진섭)는 지난 21일부터 정읍 태산선비문화권을 사전에 답사하고 작가들의 시선으로 정음을 자유롭게 표현한 전시 '정음을 들여다보다'전이 막을 올렸다.

이번 기획전시는 정읍 태산선비문화권의 무성서원, 김동수 가옥, 태인향교, 피향정 등을 전라권의 중견 작가 12명의 시각으로 들여다 본 정음의 풍경으로 정음의 관람객을 맞이한다.

정음의 풍경을 단순히 그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작가들의 시선을 통해 또 다른 풍경과 이야기를 드러내고 옛 선조의 모습이 투영되며, 꿈꾸는 정음의

이야기까지 담겨져 있는 작품들로 구성된다.

유진섭 시장은 "우리 지역 문화적 자원을 표현한 작품을 시민들께 보여드릴으로써 지역을 다시 보는 기회와 함께 시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풍성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시는 무료입장이며, 일반 시민들을 위한 체험교육프로그램으로 뒷마당 상삼버스에서 '사시사철 캔버스도 운영한다. 자세한 정보는 정읍시립미술관 홈페이지(www.jongup.culture/index.jongup)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음=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featuring product images, a cartoon mascot, and promotional text in Korean.